

자연, 우리의 미래!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더욱 다양한 단풍나무 정보와 상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생태동화 **아미와 장이의**  
**숲속여행**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하늘이 파란색으로 곱게 물든 어느 가을, 아침 햇살이 호수에 비치자 여기 저기서 아침을 열기 시작하네요. 갈참나무들은 웅웅 낮은 소리를 내고 비자 나무들은 동동동 작은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가을빛을 듬뿍 받아 오색으로 빛나는 아기단풍 나무들도 바스락, 바스락 소리를 내는군요.

호숫가 아기단풍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게 물든 것은 엄마 단풍나무였어요. 엄마 단풍나무는 커다란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러자 단풍잎들 사이로 프로펠러 같은 씨앗들이 눈처럼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바람이 휘리릭 씨앗들을 백암산 곳곳으로 날려 보냈어요.





“아가들이 멀리멀리 퍼져 나가렴, 그리고 엄마처럼 튼튼하게 자라렴!”

“야~호, 내가 하늘을 날고 있어!”

“난 더 멀리 갈 거야! 그리고 엄마보다 더 크게 자랄 거야!”



얼마나 지났을까? 엄마 단풍나무는 이제 단풍씨앗들이 모두 바람에 날려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단풍씨앗 하나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아기 아미야~ 넌, 왜 아직 거기 있는 거니?”

단풍씨앗 아미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난 너무 작아서 엄마처럼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 거예요.”

“어리란다. 얘야! 너도 멋진 단풍나무가 될 수 있단다!”





아미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두려웠어요. 그리고 포근한 엄마 품이 너무나 좋았어요.

엄마 단풍나무는 가지를 더욱 힘차게 흔들며 아미가 멀리 떨어지게 하려 했어요. 그러나 아미는 쉽게 엄마 품을 포기하지 않았죠.

“바람 님, 바람 님, 우리 아기 아미 좀 멀리 날려 보내 주세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야 하는데 어리광만 피우는군요.”

그러자 바람은 빙그레 웃으며 불어와 주었어요. 아미는 나뭇가지를 꼭 붙잡았지만 바람 때문에 하늘로 날아오르고 말았습니다.

“바람 님!, 바람 님! 걸 데려가지 마세요, 바람 님!”

아미는 바람에게 애걸했지만 이미 하늘 끝까지 올라가 빙글빙글 정신없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미가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나 먼 곳까지 날아간 후였어요. 아미는 낮설고 무서워 울어버렸어요.

“넌 누군데 여기서 울고 있니?”

아미가 깜짝 놀라 둘러보니 자신보다 커 보이는 단풍나무 씨앗 하나가 웃고 있었어요.

“누, 누구세요?”



“난 내장 단풍 씨앗 장이야, 너보다 크지만 나도 올해 태어난 씨앗이야.”

“그~ 그래? 난 아미라고 해”

“그런데 왜 울고 있는 거니?”

“난 엄마나무 곁을 떠나기 싫어. 그리고 난 너무 작아 겨울이 오면 끄꿍 얼어붙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글쎄, 아직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럼 우리 다른 나무들에게 물어볼까? 우리가 잘 자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지 말이야.”

“그래 좋은 생각이야!”

“바람 님!, 바람 님! 우리를 다른 나무들에게 보내주세요!”

내장 단풍 씨앗 장이는 힘차게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그러자 바람이 내려앉아 아미와 장이를 손에 올려놓더니 따뜻하게 후~하고 불어 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미와 장이는 신이나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하늘 아래로 또 빙글빙글 돌며 내려왔습니다. 아미는 이번에는 무섭거나 어지럽지 않고 무척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미와 장이가 사뿐히 내려앉은 곳은 어머 어마하게 큰 나무 아래였어요. 그 나무는 어찌나 크던지 가지 끝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굵고 깊은 주름이 온몸을 뒤 덮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장이는 큰소리로 나무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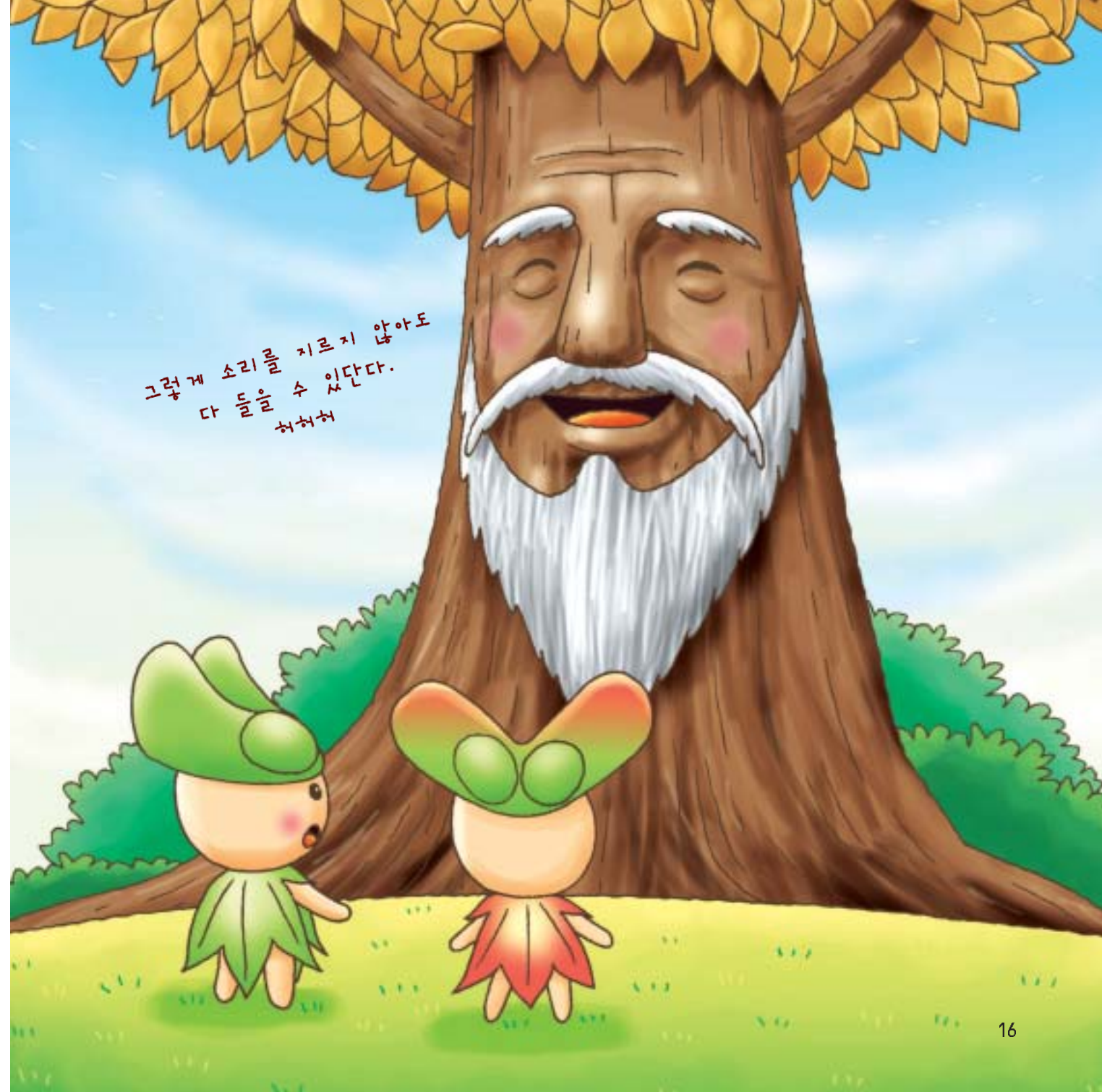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다 들을 수 있단다. 허허허”

나무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말했어요.

“너희는 단풍나무 씨앗이구나. 그런데 왜 날 찾아온 게냐?”

아미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히더니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도 할아버지처럼 크고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이렇게 조금만 데 말이에요”







“허허허, 멋진 나무로 자라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게냐? 이 할아버지도 아주 어렸을 때, 그래 맞아. 너희처럼 도토리였던 시절 어떻게 하면 멋진 나무 될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지”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미와 장이는 동시에 나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나가  
멋진 나무가  
될 수 있을거야!!

“그럼 정말이고말고. 아직도 처음 도토리가 되어 땅에 떨어졌을 때를 기억하고 있단다. 내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어떤 고양이 다람쥐가 날 낚아채 가지 뭐냐! 그때 난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를 땅속 굴에다 넣어두는 것이 아니겠니? 땅속은 무척 축축하고 냄새도 고약했지만 난 그 속에서 멋진 나무가 될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단다. 그랬더니 온몸에 기운이 생기고 부쩍부쩍 자라는 것 같았어.”





“혹시 다람쥐가 다시 찾아오진 않았나요?”

아미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았어요.

“허허허, 다람쥐는 생각보다 머리가 나쁘단다. 그래서 날 넣어두었던 굴을 까맣게 잊어버렸지.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멋진 나무가 되어야 겠다는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단다. 그렇게 한해 두 해가 지나면서 난 멋진 나무로 자라게 되었지. 이젠 700년 넘게 살고 있지만 큰 나무로 자랄 것을 믿지 못했다면 난 다람쥐 밥이 되었을 거야. 허허허”

“할아버지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다람쥐는 멍청하지 않다고요!”

나무 할아버지의 나뭇가지에서 놀고 있던 다람쥐 한 마리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다람쥐는 멍청하지 않다고요!





장이와  
아미예요!

쿵쿵~

“예기 요놈, 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다고 그러느냐?”

“이 갈참나무 할아버지는 항상 옛날 얘기 만 한대니까!  
그런데 너희는 이름이 뭐니?”

다람쥐는 아미와 장이를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내장 단풍나무 장이이고 애는 아기단풍 나무 아미예요”

“그래? 그런데 너희 맛있게 보이지는 않는구나? 참 너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참 너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장이와 아미예요.”

장이가 큰소리로 다시 말했어요.

“아하 그랬지. 그런데 너희는 맛있어 보이지 않는구나!”

다람쥐는 그리고는 도토리들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미와 장이는  
나무 할아버지의 말처럼 다람쥐가 자꾸 자신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자 쿵쿵  
웃음이 났습니다.

“아미야 이제 다른 나무를 찾아가 볼까?”

“응 장이야!”

아미는 힘차게 대답했어요. 다시 바람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면서 아미는 멋진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미와 장이는 바람에 이끌려 호수와 들판을 건너 어느 산기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초록색 잎들이 무성한 나무들의 숲이었어요.

아미는 초록색이 짙은 나무는 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단풍나무도 울긋불긋 단풍 옷을 갈아입었고 갈참나무 할아버지도 마른 낙엽을 하나둘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미는 처음 보는 광경에 신기한 듯 초록의 나무들을 이리저리 쳐다보았어요.





“애들아 숙녀들을 그렇게 쳐다보는 것은 실례란다.”

“죄송해요. 나무 아주머니. 너무나 예쁜 초록색이어서 그만.”

아미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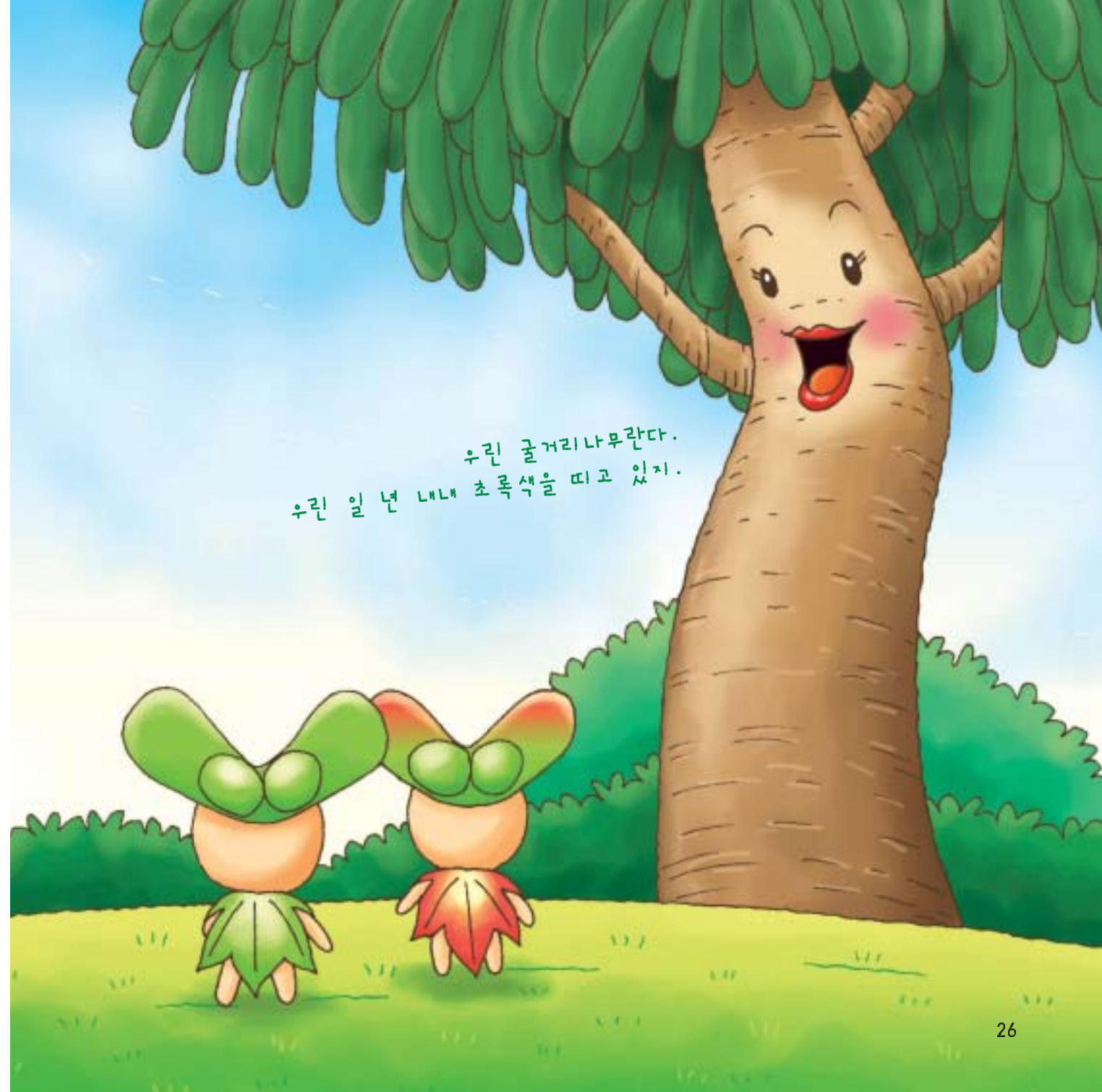
“맞아요. 나무 아주머니! 정말 멋진 초록색이에요.”

장이도 맞장구쳤어요.

“녀석들 우리들의 초록색이 신기한가 보구나? 우린 굴거리나무란다.  
우린 일 년 내내 초록색을 띠고 있지.”

“정말이에요? 추운 겨울에 도요?”

아미는 굴거리나무 아주머니의 말에 너무나 대단한 나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도 궁금했지요.



우린 굴거리나무란다.  
우린 일 년 내내 초록색을 띠고 있지.



으~ 추워!!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서  
더욱 멋지고 튼튼한  
나무가 될거야.

“아주머니, 저희도 겨울에 초록색 잎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장이가 궁금한 것을 못 참겠다는 듯 말했어요.

“전 약해서 겨울에는 얼어 죽을 거예요!”

아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호호호, 너희는 겨울에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단다. 그리고 굴거리나  
무보다 단풍나무들이 더 추운 곳에서 살고 있는 걸!”

“정말이요? 정말?”

“우리는 너무 추운 곳에서는 살수 없지만 단풍나무는 나뭇잎을 붉게  
물들인 후 떨어뜨려 추운 겨울을 참아내지. 그리고 봄에 아름다운  
새색을 피운단다.”

“그럼 저희도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럼 물론이지. 추운 겨울을 잘 이겨 낼수록 더욱 멋지고 튼튼한 나  
무가 될 수 있지. 그리고 겨울을 이겨내는 동안 땅도 하늘도 바람도  
너희에게 힘을 나눠 줄 거야.”





아미는 나무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추운 겨울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굴거리나무의 초록빛 잎들도 멋있지만 엄마 단풍나무의 오색빛깔 나뭇잎과 봄날의 새싹도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무 아주머니, 아주 고맙습니다.”

아미와 장이는 굴거리나무 아주머니에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때를 맞추어 바람이 아미와 장이를 지금까지 보다 더욱 높은 곳으로 날려 보냈어요. 아미와 장이는 너무나 신이나 소리를 질러댔어요. 한참 아래로 내려오다가 장이는 갑자기 어디선가 독특한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아미야, 아미야 어디선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니?”

“어디? 어디? 맞아.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아미야! 우리 향기나는 곳으로 가보자!”

“그래, 그래”

아미와 장이는 향기나는 쪽으로 더욱 몸을 회전시키며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아미와 장이가 도착한 곳은 뽕죽한 진녹색의 잎을 가진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곳이었어요.

“우와 여기는 향기가 더 많이 나는데!”

장이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그러자 장이 앞에 서 있던 나무 아저씨가 흠뻑 헛기침을 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향기를 맡고 왔나 보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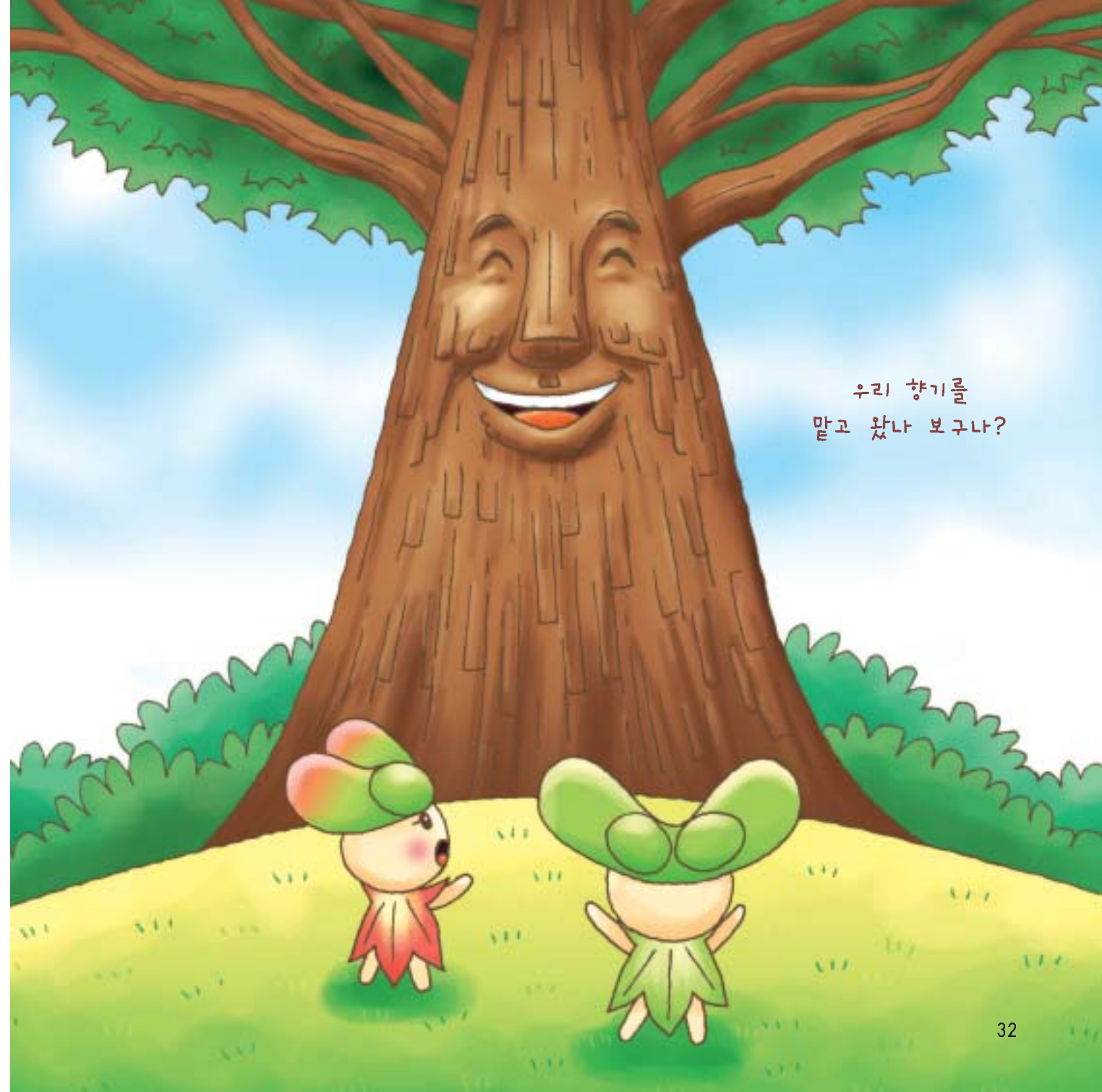
“네, 나무 아저씨! 이 향기는 아저씨 몸에서 나는 거예요?”

장이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그래! 그렇단다. 우리 비자나무는 잎과 열매에서 향기가 나지.”

“우와! 아주 좋겠어요.”

아미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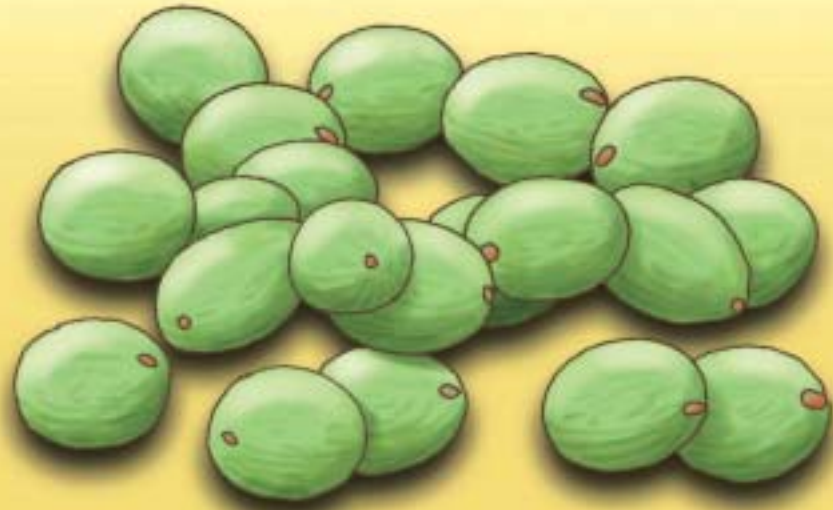
우리 향기를  
맡고 왔나 보구나?



“그뿐인지 아니? 우리 열매는 몸속의 벌레를 없애주는 약으로 사람들이 사용한단다. 또 우리는 탄력이 좋아서 좋은 바둑판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지.”

“정말이요? 저도 비자나무 아저씨처럼 여러 곳에 쓸모 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장은 비자나무 아저씨가 너무나 부러운 듯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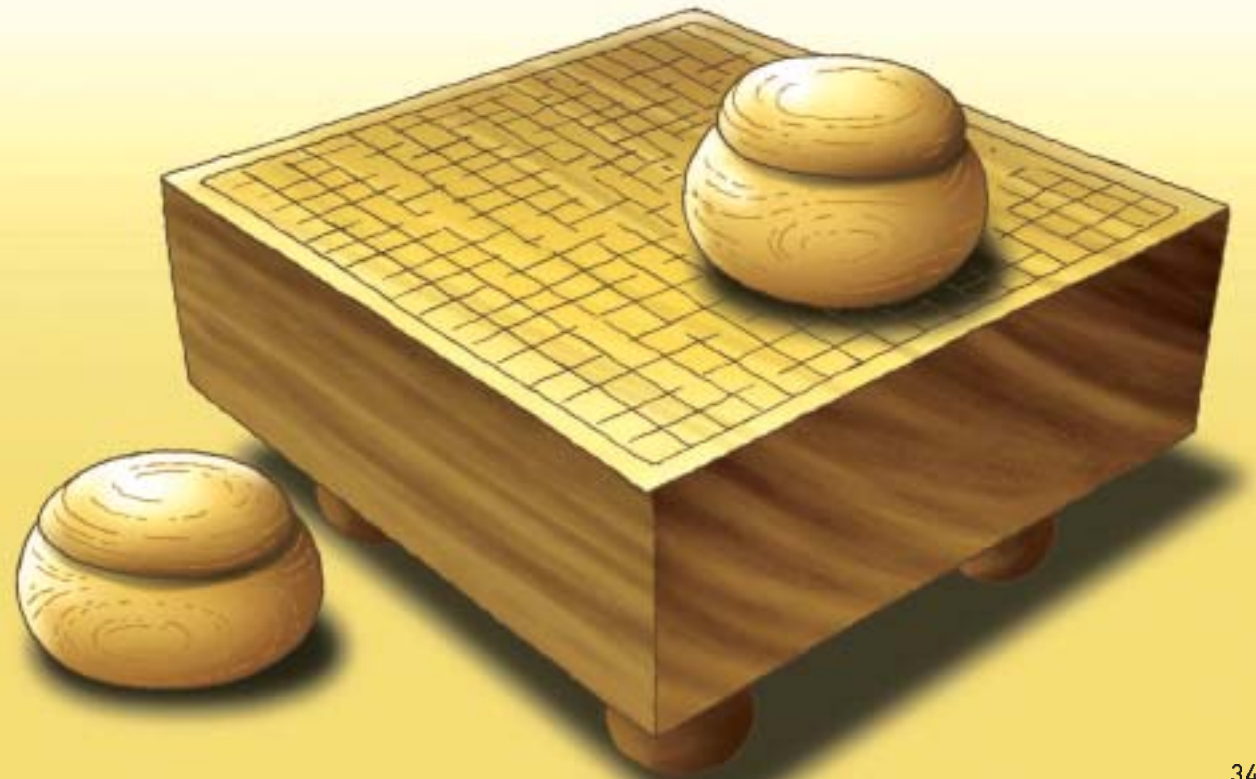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쓸모 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요.”

아미도 쓸모 있는 나무가 되고 싶어 나무아저씨에게 물었어요.

“하하하, 쓸모 있는 나무가 되고 싶다고? 너희는 단풍나무가 얼마나 쓸모 있는 나무인지 모르고 있는 모양이구나?”

“우리가 쓸모 있는 나무라고요?”



“그럼! 그럼! 자, 자신감을 가지렴. 단풍나무는 좋은 목재로도 사용되지만 달콤한 수액을 가지고 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을 숲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단풍나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정말이요? 정말?”

“정말이고, 말고 단풍나무들이 붉은색으로 옷을 갈아입으면 숲 속의 친구들은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단다. 숲 속의 모든 생명들은 모두 서로에게 자기 것들을 나누어주고 나누어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단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렴. 너희는 하나의 나무이자 하나의 숲으로 자라는 거야!”

아미와 장이는 자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속에는 숲이 잠들어 있어.’

‘나는 꼭 튼튼히 자라서 훌륭한 숲이 될 거야!’





비자나무의 향기를 타고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아미와 장이는 비자나무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바람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아미는 겁나거나 두렵지 않았답니다. 장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왜냐하면, 둘의 가슴속에는 누구보다도 큰 나무와 누구보다도 울창한 숲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서쪽으로 기울여가던 해님은 백암산 학바위를 붉게 물들이더니 작은 호숫가를 찰랑찰랑 건드렸습니다. 양지바른 곳에 자리를 튼 아미와 장이는 추운 겨울을 뚫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겠다고 아니 아름다운 숲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내장산 한 호숫가에 사이좋은 아기단풍과 내장 단풍이 자라게 되었답니다.



그래 우리 속에는  
숲이 잠들어 있어.



나는 꼭 튼튼히 자라서  
훌륭한 숲이 될 거야!

## 등장하는 숲 속 나무 친구들



### < 아기단풍 >

아기단풍나무는 주로 내장산국립공원의 산골짜기에서 잘 자란답니다. 키는 보통 10m까지 자라며, 나무껍질은 짙은 회색빛이고 잎은 일반 단풍나무와는 달리 5~7갈래로 갈라져 마치 아기의 고사리 손 모양처럼 작고 귀엽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기단풍나무는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에 분포합니다. 내장단풍은 아기단풍에 비해 잎의 크기가 크며, 5~9갈래로 갈라져 있고 내장산에서만 자랍니다.



### < 갈참나무 >

갈참나무는 산기슭에서 잘 자란답니다. 열매는 도토리라고 불리는데 땅콩, 호두와 같은 견과류이지요. 도토리는 겨울철 다람쥐나 청솔모 등의 귀중한 비상식량이지만 여러분이 먹는 식탁에 도토리묵 요리로 올라오기도 한답니다.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산의 갈참나무는 300년 이상된 할아버지 나무 20그루가 모여살고 있고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갈참나무는 700년 된 대장할아버지나무가 있답니다. 백암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이 먹은 갈참나무들의 장수마을입니다.



### < 비자나무 >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산의 비자나무숲은 천연기념물 제15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비자나무는 추위를 싫어하는 특성 때문에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산을 경계로 그 위 지방에서는 추워서 잘 자랄 수가 없답니다. 비자열매는 약이 없던 옛날시대에 구충제 대신 몸 속에 나쁜 충들을 없애는데 이용되었습니다. 또한, 목재는 질이 좋기 때문에 각종 기구를 만드는데 이용되었으며, 특히 바둑판 만들 때 사용되는 귀중한 재료였습니다.



### < 굴거리나무 >

내장산국립공원 굴거리나무군락지는 천연기념물 제91호로 지정된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나무랍니다. 굴거리나무는 추위를 싫어하는 특성 때문에 내장산국립공원을 경계로 그 위 지방에서는 추워서 잘 자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내장산국립공원에 많이 모여 살게 되었어요. 최근 들어 기후온난화의 영향으로 조금씩 위로 올라가 살기도 하는데 환경지표식물로서 굴거리나무를 보면 환경변화를 느낄 수 있답니다.



2010년 12월 24일 초판 발행

2011년 4월 30일 2쇄 발행

발행인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소장 정석원

총괄 : 자원보전과장 박성배

집필자 : 역사문화담당 이기구

책임편집 : 생태담당 김대광

삽화 : 최연수

펴낸곳 : 이노디자인 www.inno4u.co.kr

발행처 :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116

• 전화 : 061)392-7088, 7288

• 팩스 : 061)392-7556

• 홈페이지 <http://naejang.or.kr>

• 사이월드 타운홈피 [http://town.cyworld.com/maple\\_store](http://town.cyworld.com/maple_store)

◆ 본 창작동화는 내장산국립공원 핵심사업 “단풍나무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이 책의 저작권은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에 있으며, 백암사무소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와 전제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참고 문헌]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2009. 『내장산국립공원 자원 모니터링』.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2010. 『내장산국립공원 자원 모니터링』.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윤주복. 2008. 『나무 쉽게찾기』. 도서출판 진선.